



절친은 이대형을 춤추게 한다



중·고 동기 신종길, 고민 나누며 운동 시너지
‘벤치클리어링 악연’ 임준혁, 끈끈한 동지로
선동열 감독 “동료들과 어울리며 자신감 상승”



신종길 임준혁

KIA 이대형의 특별한 인연들이 눈길에 끈다. 우려와 달리 이대형은 완벽하게 새 팀에 적응하면서 KIA 타이거즈의 톱타자로 자리매김을 했다. 선동열 감독은 적이 아닌 아군으로서의 이대형을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선수들과 어울리면서 밝아진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기회를 믿음을 준 KIA가 이대형을 춤추게 했고 이대형은 KIA를 춤추게 하고 있다. 이대형을 춤추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에 ‘절친’ 신종길이 있다. 두 사람은 무등중-광주일고에서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운 각별한 친구사이다. 꿈의 시작점은 달랐다. 신종길이 2002년 롯데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프로 선수가 됐다. 이대형은 1년을 더 광주일고 선수로 된 다음에야 LG의 선수를 받아 프로에 진출했다. 시작은 늦었지만 이틈을 먼저 알린 것은 이대형이었다. 빠른 발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프로야구를 대표 하는 대도도 떠올랐다. 4년 연속 도루왕, 3할 타자 그리고 끝내 클러치까지 품어 안았다. 친구 이대형이 필필 나는 동안 신종길은 전전금금 야구를 고민했다. 2003년이 끝난 후 신종길은 이상목의 FA 보

상선수로 한화로 동지를 옮겼다. 프로야구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부상과 군복무 등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2009년 그러던 고향으로 돌아왔다. 긴 기다림 끝에 지난해에는 3할 타자로 등극하면서 KIA를 대표하는 타자가 됐다.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이대형이 FA 대이동이 있었던 2013년 겨울 KIA 선수가 되면서 두 친구가 같은 그라운드에서 담당하게 됐다. 나란히 외야를 지키는 두 사람은 함께 맞서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속마음을 풀어내면서 진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KIA 선수가 되면서 만나게 된 색다른 인연도 있다. 악연도 인연이라고 했다. 2008년 5월18일 무등경기장에서는 KIA와 LG 선수들 사이에 벤치클리어링이 발생했다. 경기 도중 가끔 발생하는 기싸움이기도 하고, 선수들끼리 알아서 매듭을 푸는 업계에서는 보통의 일이다. 그런데 이날 KIA투수 임준혁이 이대형을 밀치면서 상황이 커졌다. 임준혁이 퇴장을 당하면서 상황이 정리 되기는 했지만 3연전 내내 계속됐던 양팀의 신경전의 끝이 좋지 못했다. 이대형의 이적으로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같은 팀

이 됐다. 임준혁이 지난 12일 1군 엔트리에 합류하면서 이제는 동지가 된 두 사람이 같은 덕아웃에 앉았다. 물론 두 선수는 지난 겨울 선수단 회의에서 주장 이범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해의 줄을 나눴다. 15일에는 이대형의 또 다른 인연이 경기장을 찾았다. 함께 할 수는 없는 인연이자 운명인 한화의 이용규. 두 사람은 LG에서 한 때 한솥밥을 먹었지만 외야를 보는 빠른 발의 좌타자라는 공통점 탓에 인생이 엇갈렸다. 2005년 이대형에 밀려 이용규가 KIA로 트레이드 됐고, 2014년 이용규가 FA로 이적하면서 이대형이 KIA로 오게 됐다. KIA 이대형이 만든 특별한 인연들. 돌고 도는 그라운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특·특·특

▲“자전거 사러 갔어요.”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필이 프로야구 적응에 이어 한국생활 적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경기에서의 부진과 달리 필은 정규리그가 개막하자 자신의 타격 본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KIA 타선의 핵으로 떠올랐다. 몸쪽, 바깥쪽 상관없이 밀고 당기며 신바람 타격과 함께 순조롭게 한국 프로야구에 적응하고 있다. 한 달 여의 타격 생활. 이제는 그라운드 밖 생활에도 적응해가고 있다. 휴식일 날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필은 “자전거를 사러갔다”며 환하게 웃었다. 자전거의 용도는 ‘출퇴근용’. KIA 외국인 선수들은 기아 자동차를 렌트해서 경기장을 오고곤 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차로 5분 여 거리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필은 자

나지완, 훈련중 공 맞고 “아프다고 할 때가 아니죠”

전거를 선택했다. 운동도 하고, 시간이 절약하기 위해서다. 필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장 주변으로 차가 너무 막힌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휴경기가 있는 날 팬들은 자전거 탄 필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제가 지금 아프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죠.” 타격 훈련을 위해 걸음을 옮기는 나지완에게 눈길이 집중됐다. 선동열 감독은 “괜찮냐?”고 말을 건넸다. 나지완은 15일 외야에서 워밍업을 하다가 공에 왼 종아리를 맞았다. 얼음찜질을 하느라 뒤늦게 훈련에 나선 참이었다. “다리가 부어올랐다”며 울상인던 덕아웃에서의 표정과 달리

나지완은 선 감독의 질문에 “제가 지금 아프다고 할 때가 아니다”고 씩씩하게 답을 했다. “월이 든 거냐”며 깔깔 웃는 선 감독의 웃음을 뒤로하고 나지완은 타격훈련을 진행했다. 군대까지 미루고 야시안게임에 도전하고 있는 갈 길 바쁜 나지완. 팀 여건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마운드의 줄바꿈에 비상이 걸렸고, 유격수 김선빈도 허리에 답이 오면서 스타팅 멤버에서 빠졌다. 김주찬도 발바닥이 좋지 않아 좌익수와 지명타자를 오가고 있다. 선 감독의 격려와 달리 나지완은 15일 4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 안타 없어도 ‘출루머신’

시애틀전 2타수 무안타 2볼넷... 출루율 0.441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볼넷 2개를 얻어내 출루율을 약간 올렸다. 추신수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볼넷 2개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289(45타수 13안타)로 떨어졌지만 출루율은 0.441로 소폭 올랐다. 병살타 4개와 실책 3개로 자멸한 텍사스는 1-7로 완패했다. 추신수는 1회 쿠바 출신 왼손 투수 로에

니스 엘리아스와 9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후속 엘비스 안드루스의 우전 안타로 텍사스는 무사 1,2루 선취점 찬스를 잡았으나 알렉스 리오스, 프린스 필더가 각각 3루수 병살타, 삼진으로 돌아선 바람에 맥없이 기회를 날렸다. 3회 무사 1루 두 번째 타석에서 추신수는 엘리아스와 다시 풀카운트 대결을 펼쳤지만 몸쪽 빠른 볼에 2루수 병살타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추신수는 15일 오후 7시 5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시애틀과의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 한인 동포 1천명의 힘찬 응원들 등에 업고 설욕에 앞장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월드컵 한국 선수들 몸값 27위

6월 개막하는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32개국 가운데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몸값이 27위 정도에 해당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브라질 경제신문 이코노믹 밸류(Economic Valor)가 최근 보도한 32개국 대표팀 선수들의 시장 가치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의 몸값은 1억8600만 헤알(약 872억4516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선수들의 나이와 경기력, 몸 상태, 마케팅 영향력, 대표팀 후원 업체 현황 등 모두 77개 항목에 걸쳐 몸값을 계산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손흥민(레버쿠젠)으로 1560만 헤알

(약 73억원) 정도 된다고 나왔다. 한국과 같은 H조에서는 벨기에가 10억3700만 헤알(전체 7위)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했고 러시아가 5억8480만 헤알(11위), 알제리는 2억3260만 헤알(25위)로 모두 한국보다 앞선 순위를 기록했다. 전체로 보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이 1위를 차지했다. 스페인은 14억8990만 헤알(약 6988억원)을 기록해 14억5070만 헤알의 아르헨티나를 앞섰다. 개최국 브라질은 14억3880만 헤알로 3위에 올랐다. 선수 개인으로 보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4억2260만 헤알(약 1982억원)로 가장 ‘귀하진 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한길 차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에서 로키스의 우익수 마이클 커다이어가 샌디에이고의 일렉시 아마리스타가 친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올랐으나 미치지 못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밀워키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경기에서는 밀워키 브루어스의 외야수 카를로스 고메즈가 공을 쫓아 뛰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